

“종책 선거 상실... 종도 관심 절실”

불교시민단체, 29일 종회선거로 본 종단 미래 토론회

“향응, 금권선거 등이 조계종을 수식하는 단어가 되어왔습니까”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월 29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는 ‘종회의원 선거와 종단의 미래’를 주제로 대중공사가 열렸다. 종단이 개인·당파간 이전투구의 장이 된지는 오래. 금품 살포, 흑색 비방의 폐단을 줄이고 청정 선거 풍토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사부대중 20여명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도법 스님은 “사부공통체를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앙종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의원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부명 스님(인천 몽은사)은 후보자들이 오로지 당선만 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토론회 공약은 물론 종책 자료집도 없다. 심지어 그들에게서 출마의 변을 들을 수도 없다”며 “후보자가 여비문제가 아니라 종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7~80년대 한국사회에 유행하던 금권선거가 선거법이 강력하게 집행되면서 점차 사멸해갔다”며 “종단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선거 전후 종도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종회의원 선거가 혼탁하게 된 데 대해 중앙 스님(대구 보리사)은 “문제의 뿌리는 승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계파에 있다”며 “기본적 승려 복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금권선거와 나눠먹기식 관행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윤선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역시 “승려로서 지위를 누리려 하면서 폐거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동감했다. 그는 “조계종 선거는 사회 선거에 비취했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비민주적”이라며 “사부대중 감시단의 후보 검열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권선거 근절 방안으로 중앙 스님은 종회의원 이권 감소, 출마 2선 제한, 선거법위반 신고자 보호·보상시스템 강화, 금품받지 않기 자정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여비를 앞세워 돈이 오가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공탁제를 채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선거권자에게 거리 별 여비를 투명하게 나누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바람직한 종회를 위한 의견들도 나왔다. 종회의원들의 활동을 점검하는 사부대중 평가 감시단 상설화, 계파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는 직능종회의 정상화, 종단 문제 진단 위원회 운영 등의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금품살포·흑색비방 근절위해

종회의원 출마 재선으로 제한

부정 선거 고발·보상 강화도

사부대중 평가 감시단 상설화

정승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분야별 직능종회 추진체를 두고 이관과 사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부정을 줄일 수 있도록 제정된 통합선거법이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법집행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운 스님(서울 대원정사)은 “부처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의심될 정도로 (도덕적 자질이 결여된) 말도 안 되는 스님들이 당선되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병든 승가공동체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선거풍토가 바람직하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만의 선거이기 이전에 이는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시민사회단체는 9월 19일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재산 사유화’ 못 막으면 종단 붕괴한다

현응 스님, 1일 종단 개혁 20주년 세미나서 주장

1994년 조계종의 종단 개혁불사가 이뤄졌다. 새로운 행정체계가 만들어졌고 그 형태로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재정 비리와 지계 문제 등 현재 종단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찰 운영이 사유화되면서 재정이 전체 승가에 회향되지 못해 종단의 여러문제가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0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3차 세미나에서 ‘조계종단의 미래와 과제’를 제하로 한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사찰(공찰)의 현금 재원이 주로 해당 사찰 스님들에게만 사용되고, 전체 승가에 기여하는 면이 적다”면서 “1994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사찰 예산회계 제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사찰에서 발생하는 현금 재원의 수입과 지출이 엄정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단이 스님들의 기본적인 의무 교육 경비와 교화활동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리후생과 노후복지, 의료대체 등이 취약하고 비판하며 “이 같은 원인들로 인해 종단의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종단에 금지하고 있는 개인재산 축적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이런 문제들은 종단이 앞

장서 조정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일종단, 단일승가, 화합승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제 종단은 ‘우리에게 종단이 될 해주고 있나’라는 스님들의 질문에 부응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종단이 10년 이내 추진될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스님들의 복리후생과 전법 교화, 수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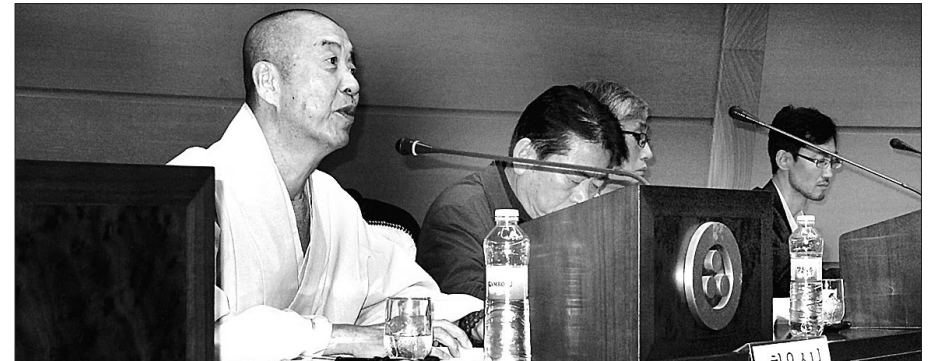
스님들 복리후생 불안정 이유로

사유재산 축적... 악순환 이어져

연구 시설·연금 등 대책 필요

재가자 종단 운영 참여 확대해야

스님은 추진 과제로 △승덕급 이상 모든 스님에게 소규모 연구숙사 제공 △승덕 이상 스님들에게 생활, 활동 등 연구교화비 매달 지급 △모든 종단 스님들에 대한 의료 지원 △종단 스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연수경비, 승가고시비 등은 종단 부담 △대도시 대학원에서 불교교화에 필요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스님들을 위한 별도의 연구숙사 마련 △특별분담금 사찰 주지와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소임자에게 ‘종무원 연금’ 지급제도 도입 △중앙종단의 행정체계



조계종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0월 1일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면 개편 △중앙총무기관 부서와 직제에 ‘승가수행교화 지원업무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응 스님은 “지금 종단의 현실은 ‘무소유공동체’나, ‘사유화각자도생’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분기점에 서 있다”면서 “손을 놓고 있으면 5년 이내에도 종단이 붕괴될 수 있다. 종단의 스님들이 합의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늦어도 10년 이내에 존경받는 승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은 ‘현대사회의 메가트렌드와 미래를 대비하는 조계종의 과제’란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현응 스님의 주장은 한국불교의 부당한 관행을 청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지만 사찰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수입과 지출이 엄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등 종단의 행정능력, 중앙과 분말사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제안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한국불교는 승가와 종단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종파불교의 산물”이라며 “대중적 생활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종단개혁을 위해서는 재가의 종단참여를 과감히 넓히고 전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재가불자들이 종단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때 개혁종단이 바라는 종단의 자주화, 불교의 대중화, 종단 권력의 안정적 제도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일문스님이 ‘종단과 사찰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대안’을 류지호 월간 불광 주간이 ‘바람직한 종단의 인사와 선거, 제도에 대하여’를 박재현 제4교구부사 월경사 주무살장이 ‘교구제의 변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구글 엔지니어에게 듣는 ‘명상 트렌드’

조계종 포교원, 11~15일 차드 멩 탄 초청 행사 개최

구글에 명상 전파한 명상수행자

차드 멩 탄과 韓 수행자들 만남

명상 대중화·창의적 리더십 모색

구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된 구글에서 명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차드 멩 탄(Chade Meng Tan, 사진)이 주인공이다.

그는 구글 초창기 멤버로 명상의 우수성을 안 후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새로운 정서지능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성공적 엔지니어에서 세계적 명상수행자로 변화한 차드 멩 탄이 한국 불교계의 초청으로 방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구글의 명상가 차드 멩 탄(Chade Meng Tan)을 초청해 명상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와 포럼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 명상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불교명상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각계 지도자와 명상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초청행사는 템플스테이, 세미나, 명상포럼으로 나눠 진행된다. 템플스테이는 10월 11일~12일 1박 2일 동안 육지장사에서 차드 멩 탄의 명상기법과 한국 전통선 체험을 진행한다.

10월 1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명상 간담회는 구글의 사례를 통한 임직원 명상 프로그램의 내용과 세계적인 명상 트렌드



에 대한 특강이 이뤄진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진행되는 ‘창의적 리더십과 명상’ 초청 특강에서는 심성개발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명상 효과를 모색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명상은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창의력과 통찰력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명상이 기업 문화의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불교 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우국사 기리는 문화의 향연 열린다

4회 태고문화축제 10월 13~14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산)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고양시, 경기문화재단 등의 후원으로 10월 13~14일 양일간 제4회 태고문화축제와 다례법회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광장 특별법회장과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태고사에서 각각 봉행한다.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광장에서 봉행 되는 태고문화축제는 기념식과 영산재 시연, 찬불가 합창 등과 함께 염주 만들기, 붓글씨 하운 써주기, 나비춤 바라춤 모습으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린다.

한편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북한산 태고사 경내 태고보우 국사 부도탑 앞에서 탄신 제 713주년 다례법회가 봉행된다. (02)739-3450~4 김주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접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제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